

보도일시	2025.10.27.(월)15:00	배포일시	2025.10.27.(월) 9:00		
담당부서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운영부	책임자	부장	박혜원	032-290-2030
		담당자	학예사	이정연	032-290-2026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특별전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

- 책은 언제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나? -

-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지식의 대중화를 이끈 ‘알도 마누치오’ 소개
- 마누치오 출판 가문 3대 출판 유산을 최초로 집중 조명한 전시
- 페트라르카, 단테, 보카치오, 에라스무스, 피에트로 벰보 등 르네상스 희귀본 대거 전시
- 국내 출판사와 협업한 큐브레이션 공간과 ‘미니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코너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기획특별전 《천천히 서둘러라 :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2024~25)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 1449/1452~1515)’를 국내 최초로 본격 소개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의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베네치아 국립마르차나도서관과 협력하여, 마누치오 가문의 3대에 걸친 출판 문화 유산을 조명한다. 전시에는 『지리학』(1482), 『라틴어 문법』(1493), 『폴리필로의 꿈』(1499),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1500), 『베르길리우스 전집』(1501), 『지옥도(신곡)』(1515), 『데카메론』(1522) 등 르네상스 출판 문화의 정수와 더불어, 서체와 편집 디자인을 통해 독서 문화의 혁신을 보여주는 세계 희귀본들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민음사, 시공사, 동아시아, 태학사, 윌라 등 국내 23개 출판사가 참여한 북큐레이션 공간과 오디오북·전차책 등 책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출판계의 미켈란젤로, 알도 마누치오를 국내 최초로 조명

알도 마누치오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출판인이자 인문주의자였다. 145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했다면, 알도 마누치오는 **책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이었다. 그는 베네치아에 **알디네(Aldine) 인쇄소**를 세우고, 고전문헌과 당대의 저작들을 완성도 높게 출간하여 근대 출판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휴대 가능한 작은 크기의 옥타보 판형을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기울어진 글자체인 **이탤릭체(Italic) 활자**를 인쇄해 유행시켰으며, **세미콜론(;), 어퍼스트로피('), 쪽번호** 등을 도입하여 출판 형식을 혁신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세계 최초의 이탤릭체 인쇄본과 쪽번호가 도입된 책들이 함께 공개된다. 또한 알도 마누치오가 생애 마지막으로 출판한 책과, 그 영향력이 유럽 각지에 미친 흔적을 보여주는 위조판도 함께 전시된다.

마누치오 출판 명문가의 영향력과 르네상스 희귀본 전시

이번 전시는 **마누치오 출판 가문 3대에 걸친 활동과 영향력**을 함께 집중적으로 다룬다. 알도 마누치오는 로마 남쪽 바시아노(Bassiano) 출신으로, 베네치아에서 알디네 인쇄소를 설립하며 출판인으로 활동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과 손자가 인쇄소를 이어받았고, 교황의 명으로 로마시와 바티칸 인쇄소에서 활동하며 출판의 명맥을 이었다. 전시는 이 여정을 따라 **로마에서 베네치아, 다시 로마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공간을 구성했다. 이탈리아가 새롭게 포함된 『지리학』에서 시작해, 약 300년간 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경과 1568년 로마 풍경이 담긴 판화 등으로 출판 가문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또한 르네상스 시대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불리는 『폴리필로의 꿈』과 지옥을 자세히 묘사해 초판본과 차이를 보이는 단테의 『신곡』 개정판 등 로마의 중요 희귀본이 전시될 예정이다.

국내 출판사 협업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도 마련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맞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했다. 주요 체험으로는 ‘책갈피 만들기’와 ‘포켓북 만들기’가 있다. 관람객은 고딕체와 이탤릭체를 비교하며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고, 한 장의 종이를 접어 책 한 권을 완성해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23개 출판사와 협업하여

500여 권의 도서를 소개하는 북 큐레이션 공간과, ‘한 줄 감상평 릴레이’ 프로그램, 전자책·오디오북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체험 코너**도 준비하고 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관계자는 “책은 인류 문명과 함께한 가장 오래된 지식 매체입니다. 문자를 통해 기록된 지식이 책이라는 형태로 집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책은 소수만의 것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는 그 경계를 허물며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라며, “이번 전시가 한 권의 책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처럼, 책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시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전시 연계 강연 《시간을 건너온 책들, 이탈리아 국립도서관장의 ‘책 이야기’》

- 10월 26일(일): 강연자 로마국립도서관장(Stefano Campagnolo),
국립마르차나도서관장(Stefano Trovato)

<붙임>

1. 전시 포스터
2. 전시 자료
 - 2-1. 지리학
 - 2-2. 라틴어 문법
 - 2-3. 폴리필로의 꿈
 - 2-4.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 1500
 - 2-5. 베르길리우스 전집
 - 2-6. 단테의 지옥도(신곡)
3. 전시 구성안

붙임 1. 전시 포스터



붙임 2. 전시 자료



지리학, 1482(추정)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대 그리스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작품을 개작한 것으로, 이탈리아 등 새로운 지도 4점이 추가되어 당시 유럽의 지리 인식이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줌. 알도 마누치오가 살았던 시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임



라틴어 문법, 1493

(국립마르차나도서관 소장)

알도 마누치오가 집필한 『라틴어 문법』의 초판본이자 국립마르차나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유일본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도 마누치오가 남긴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희귀한 자료임



폴리필로의 꿈, 1499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르네상스 시대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 불리며, 170여 점의 목판 삽화가 수록되어 고전적인 로마체 활자와 목판 삽화의 조화가 완벽하다고 평가됨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 1500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세계 최초로 이탤릭체(기울임체)가 적용된 책으로, 현재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탤릭체의 가장 초기적 형태를 볼 수 있는 희귀본임



베르길리우스 전집, 1501

(국립마르차나도서관 소장)

‘알도 마누치오가 최초로 전면 이탤릭체와 8절판형을 도입한 인쇄본으로, 책의 판형이 대형 판형에서 휴대 가능한 8절판형으로 바뀌며 지식의 대중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줌



단테 지옥도(신곡), 1515

(로마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단테의 『신곡』 개정판으로, 초판본과 달리 지옥의 구조를 세밀히 묘사한 대형 목판화, 지옥의 마지막 세 원에서 처벌받는 죄악의 개요도, 연옥의 단계도가 포함된 중요 자료임

붙임 3. 전시 구성안

- 전 시 명: 천천히 서둘러라: 알도 마누치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출판인
- 전시기간: 2025년 10월 28일(화) ~ 2026년 1월 25일(일) / 90일간
- 전시장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기획전시실
- 전시내용: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2024~25)' 일환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출판인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고, 그의 혁신이 이끈 책의 변화와 현대 독서 문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
*이탈리아 로마국립중앙도서관, 국립마르차나도서관과 협력 전시

구분	주제	내용
[프롤로그] 세계의 진정한 혁명, 책의 탄생		
		○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지식 매체 중 하나이다. 문자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생각과 이야기를 기록했고, 그 기록이 모여 '책'이 되었다. 오랜 세월, 책은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유럽에 도입된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종이와 물이 있었고, 인쇄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알도 마누치오*가 있었다. *알도 마누치오(Aldo Manuzio)는 알두스 마누티우스(Aldus Manutius)라는 라틴어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 전시에서는 이탈리아어 이름인 알도 마누치오로 표기합니다.
[1부] 르네상스의 물길을 열다		
		○ 알도 마누치오가 활동했던 시대 배경과 그의 주변인들을 소개 - 르네상스는 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인간을 새롭게 바라본 시대의 전환기였다. 사람들은 세상을 탐구하며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켰고, 인문주의자들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문헌을 연구했다. 이 무렵, 이탈리아 바시아노 출신의 알도 마누치오는 인문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출판업에 뛰어들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다. ▶ 전시품: 『지리학 <i>Geographia</i>』(1482 추정), 『라틴어 문법 <i>Aldi Manucii Bassianatis Romani Institutiones grammaticae</i>』(1493), 『격언집 <i>Adagia</i>』(1508) 등

[2부] 알도 마누치오, 인쇄 혁신을 이끌다

- 현대 출판의 문을 열었던 알도 마누치오의 혁신과 그의 영향(책의 대중화)를 소개
 - 알도 마누치오는 베네치아 '알디네(Aldine) 인쇄소'를 세우고 출판의 혁신을 이끌었다. 당시 베네치아는 풍부한 자본을 보유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다. 알도는 읽기 편하고 종이가 절약되는 이탤릭체를 개발하고, 세미콜론과 아포스트로피 등 문장 부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 손에 들어오는 옥타보(octavo, 8절판) 판형을 도입해 누구나 손쉽게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개인 독서 문화를 만들었다.
- ▶ 전시품: 『폴리필로의 꿈 *Hypnerotomachia Poliphili*』(1499),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가장 경건한 편지 *Epistole deuotissime de sancta Catharina da Siena*』(1500),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De rerum natura*』(1500), 『풍요의 뿔, 혹은 라틴어 주석서 *Cornucopiae, siue linguae latinae commentarii...*』(1499) 등

[3부] 알디네 Aldine를 남기다

- 알디네 인쇄소의 영향력과 후손을 통해 이어진 마누치오 출판 가문의 인쇄출판 유산 소개
 - 알도 마누치오의 혁신은 출판 문화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그가 출판한 책은 큰 인기를 얻었고, 유럽 곳곳에서 무단 복제된 위조판이 발견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강력했다. 1515년 알도 마누치오는 세상을 떠났지만, 인쇄소는 멈추지 않았다. 처음에는 장인 안드레아 토레사노(Andrea Torresano)가, 다음에는 아들 파올로(Paolo Manuzio), 손자 알도 2세(Aldo Manuzio il giovane)가 뒤를 이었다. 아들과 손자는 로마시 인쇄소와 바티칸 인쇄소에서도 활동하며 명성을 이어갔다. 비록 알도 2세를 끝으로 인쇄소는 문을 닫았지만, 알디네 인쇄소가 남긴 책들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책의 역사에서 여전히 빛이 난다.
- ▶ 전시품: 『마르티알리스 시집 *Martialis*』(1501), 『마르티알리스 시집-리옹 지역 위조판 *Martialis*』(1502 추정), 『궁정론 *Il libro del cortegiano*』(1528), 『트리엔트 공의회 교리문답서 *The Catechism of the Council of Trent*, edited and published by Paolo Manuzio by order of Pope Pius V (first edition)』(1566), 『불가타 성경 *Biblia sacra vulgatae*』(1593)

[에필로그] 책, 새로운 시대를 꿈꾸다

- 디지털 기술의 시대 도래로 다양한 책의 갈림길에서 책의 미래를 질문
 - 책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지적 유산이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핵심 매체이다. 알도 마누치오는 출판관을 통해 세상을 바꾼 혁신가였다. 그리고 그는 지식을 소수의 것에서 모두의 것으로 바꾸었다. 오늘날 책은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디지털에서 모바일로 새로운 독서 방식을 열고 있다.
- ▶ 전시품: 한국 출판사 23개와 협업하여 북큐레이션, 한 줄 감상평, 전자책, 오디오북 체험 등